

나주시,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두 번째 포럼 개최

23일 오후 3시 나주시 청년센터서 '문화재생과 지역상생' 주제로 나주시가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두 번째 포럼 자리를 갖는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3일 오후 3시부터 나주시 청년센터(토계길 61)에서 '나주극장 문화재생 프로젝트 Vol.2 문화재생과 지역상생'을 주제로 시민, 전문가, 사업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회(나주극장 문화재생의 출발)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과 관련해 지역 문화산업,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지역사회와 문화재생 간 상생과 확장 가능성을 함께 토론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포럼 1부는 서울대공원장, 한국관광공사 심사위원 등 문화기획전문가로 활동해온 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가 '문화재생-조치원 한

림제지공장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오희영 안녕다방 대표의 진행으로 김양순(협동조합성안사람들), 나안미(여행애프터협동조합), 남우진(복합공간 3917마중), 임재환(나나노플래닝) 대표들이 참석해 문화재생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옛 나주극장(금성동14-1)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나주지역 최초 극장 시설로 올해 문화체육

관광부 주관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내 유휴공간을 찾아 특성에 맞는 문화재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시는 옛 나주극장이 가진 역사, 장소적 가치를 되살리고 '다시 나주극장'이라는 테마로 근대 문화·예술·생활여사를 영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기자

화순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올해 3년째...지역 경제 활성화·상생 발전 기대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올해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의미한다.

군은 고통 분담과 상생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부 재산세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임차인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다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한도는 50%이다. 임차인

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 조치는 지난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부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되고, 감면신청을 접수한 후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 과정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3)에 문의하면 된다. /남호경 기자

장성, 일상회복지원금 소비 인증 이벤트 진행

장성군이 오는 9월 18일까지 '지역경제 살리기! 일상회복지원금 소비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은 모든 군민에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민선8기 장성군 공약사업이다.

이번 이벤트는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을 독려하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방법은 먼저 장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고 인증샷 촬영 후 개인 SNS에 올린다. 이어서 장성군 공식 블로그나 SNS에 팔로우한 다음, 네이버폼 링크를 클릭해 인증샷과 내용을 작성하고 응원 댓글과 이벤트 공유, 친구 초대까지 마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3만 원 상당의 농협 농촌사랑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당첨은 총 30명으로, 군은 9월 21일 공식 SNS에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경품은 발표 다음날인 22일에 개별 전송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일상회복지원금의 지급 취지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유광중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감염취약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사항과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지속적 확진자 발생...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관내 감염취약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사항과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환자 발생시 접촉자 분류, 감염관리, 확진자 비확진자간 동선 분리 등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역량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착탈의 실습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시설내 집단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고령층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은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담양 전통주 '천년담주', 최우수상

남도 전통주 품평회, 약주·청주 부문

담양 (주)죽향도가(대표 장우정)의 '천년담주'가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약주·청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도 전통주 품평회는 남도 전통주 위상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주류 품평회다.

품평회는 탁주와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하며,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 품질인 증 취득실적 등 서류평가와 함께 맛, 향, 색상, 후미 및 종합적 전문가 관능평가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담양산 유기농 쌀과 벌꿀로 만든 고급 약주인 죽향도의 천년담주

는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2년 전통주 품평회에서도 약주·청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에서는 이번 품평회 수상작에 온라인 판촉과 전통주갤러리 전시,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각종 행사 건배·만찬추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올해 추석에는 담양이 빛나는 품격있는 전통주와 농특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바란다"며 "소비자들이 남도 전통술을 쉽게 접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통주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다...